



무지개빛 희망을 품은  
논산 포전마을



충청남도  
마을기행



## 포전마을지킴이 김승권 위원장

충남 논산에는 마을 뒷산이 소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곤리라 불리는 ‘포전마을’이 있다. 포전은 ‘물가에 있는 밭’이라는 뜻으로 금강으로 합류되는 석성천 갯가의 밭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현재 이 마을은 2008년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되어 2009년 다목적 체험관을 준공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김승권(56, 아래 사진) 위원장이 있다.

은행원을 그만둔 뒤 고향인 이곳으로 귀농한 김 위원장은 2007년에 논산의 광석면, 양촌면 등에서 체험사업으로 마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험마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김 위원장은 그간 성동면 최초(?)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부였다.

“지금까지 농촌은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김 위원장.

그러나 열정과 현실은 엄연히 달랐다고 한다. 열정적으로 협조하는 주민과 불신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매일 결산 보고를 해도 보고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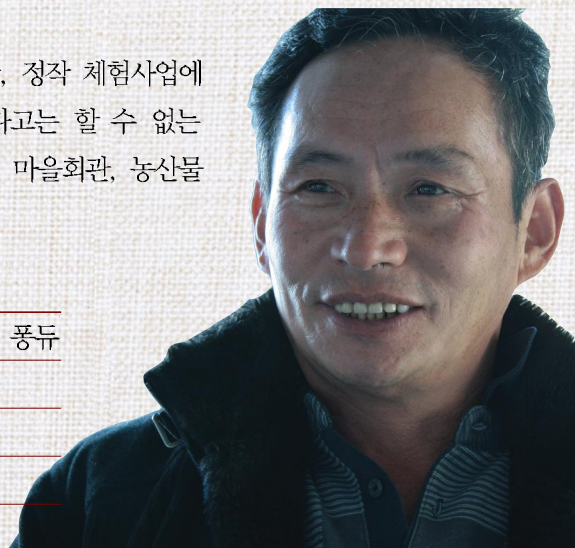
“한번은 결산 보고회에 참석한 어르신이 ‘돈도 못 벌고 뭐한다~ 통장 검사 좀 해야는거 아녀~ 누가 좀 대신 해봐~’ 이랬단다. 마음이 아팠지만 꼭 참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해시켜 나갔다.” 물론 지금은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맡긴 상태라고.

## 주변 자원과의 최적의 조합으로 체험객 유치

포전마을은 현재 60가구, 120여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지만, 정작 체험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30가구다. 물론 다른 체험마을에 비하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다. 마을을 찾는 체험객은 먼저 다목적 체험관을 시작으로 마을회관, 농산물 가공실, 우곤교회 등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별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                                   |
|----|-----------------------------------|
| 봄  | 딸기 수확 체험, 딸기잼·딸기 비누 만들기, 딸기 초코 풍두 |
| 여름 | 물놀이, 수상레저(수상스키, 바나나보트)            |
| 가을 | 고구마 수확 체험                         |
| 겨울 | 추억의 얼음썰매, 연날리기                    |
| 연중 | 자전거, 떡메, 승마, 칠보공예, 압화공예 등         |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딸기 수확과 고구마 수확 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년 체험객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에만 약 10,0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알고 보니 포전마을은 주변 자원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닌 가까운 논산역을 시작으로 강경역까지 포섭(?)해 체험패키지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체험마을 초기인 2011년도에 모 신문사에서 취재가 계기가 되어 코레일 논산역에서 찾아왔고 그해 가을 고구마 수확 체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되었다. 또 지인들의 추천으로 티몬같은 소셜커머스와도 제휴해 적극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했고, 이벤트회사나 여행스케치,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블로그와 홈페이지, 페이스북, DM발송 등 지속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중 체험객의 절반은 코레일과의 협력으로 가능했고, 무엇보다 포전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과의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한 것도 맞아떨어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바로 옆에 개척리에서는 승마 체험, 강경에서 수상스키, 가야곡에서 포도축제 등 마을 주변, 계절별 체험객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꼭 우리 마을에서만 체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말한다.

더 놀라운 것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불만족을 느낀 방문객도 있었지만 점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꼭 무언가 활동해야만 체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한번은 1박 2일 가족체험을 온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피곤하다고 오후 내내 낮잠만 자고 간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낮잠은 바로 도시에서 맛 볼 수 없는 또 다른 체험이 될 수 있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다. 농촌은 엄밀히 말해 관광지가 아





## 포전마을 주요 체험프로그램

니다. 농촌의 자원과 가치의 제일은 바로 농촌다움이 아닐까. 과거 농촌이 단순한 식량생산기지였다면 앞으로의 농촌은 체험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 것이다. 결국 농촌다운 체험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한다.

역시 김 위원장의 욕심과 포부도 끝이 없었다. 캠핑을 응용한 농촌에서의 팜핑 체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공동 숙소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양로원은 현대판 고려장에 불과하다. 도시화 되어가는 농촌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사랑방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웃 주민을 가족처럼 여기기 위해 하루 한 끼 함께 식사하기 운동을 지속하고 싶다.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원화, 노인복지를 위한 공동 숙소를 건립하는 게 꿈”라고 밝혔다.

사실 이미 포전마을은 체험관 식당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 희망의 무지개빛 포전마을을 꿈꾸며

포전마을이 앞으로 얼마나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체험마을들 중 17.5%만이 살아남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계속 배우고 있다. “홍성 문당마을, 외암 민속마을, 청양 알프스마을 등은 솔직히 부러울 때가 많다. 사업의 안정성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하시더니 “홍성 왕대골마을은 너무나 배우고 싶은 마을인데, 늦게 시작했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체험마을사업에 대해 쓴소리도 하신다. “체험마을 선정되었다고 기분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부지원으로 건물 지어 놓아봐야 유지비도 벌지 못할뿐더러, 의욕만 앞서서 ‘아차! 괜히 시작했구나’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바람은 “포전마을이 무지개였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처럼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함께 잘살기 위한 협동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 넘치는 마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무지개 마을 말이다.



찾아가는 길

▶ 주소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곡리 723 T.041-732-5508

▶ 홈페이지 : [www.pojeon.kr](http://www.pojeon.kr)







## 주변 볼거리



〈강경발효젓갈축제 모습〉



〈등록문화재 제10호 남일당한약방의 예전(좌) 현재(우)〉



〈등록문화재 제323호 강경노동조합의 예전(좌) 현재(우)〉

포전마을과 가까운 곳에 바로 강경이 위치해 있다. 마을과 불과 10분 거리(승용차 기준)밖에 안 된다.

알다시피 강경은 '발효젓갈축제'로 유명하다(사진-강경발효젓갈축제 홈페이지). 굳이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강경에는 젓갈을 판매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강경시장과 함께 금강쪽으로 나가면 전망대와 박범신 문학비도 둘러볼만하다.

또한 강경에서의 근현대문화재를 둘러보는 문화유산답사를 추천하고 싶다. 주로 구.강경노동조합 건물(테마공원), 한일은행 강경지점(역사박물관), 남일당한약방, 강경상업학교 관사 등을 볼 수 있다. 모두 등록문화재다.

그리고 강경에는 큰 돌다리 두 개가 있는데, 미내다리와 원목다리다. 특히 미내다리는 조선 영조 때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그 견고함을 자랑한다.(사진-문화재청 공식블로그)



〈등록문화재 제324호 한일은행 강경지점〉



〈등록문화재 제42호인 강경 유일의 한옥교회인 북옥감리교회〉



〈유형문화재 제11호 미내다리〉